한국·EU FTA 비준 땐 'SSM 규제법' 무용지물

"중소상인 생존 대책 먼저 세워라"

국제조약, 국내법에 우위 … 상인들 강력 반발

국회의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합의를 앞두고 중소상인들이 비준동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한·EU FTA 협정문에 따라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전통시장 500m 근처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시 조약이 우위를 갖기 때문에 FTA 조약에 의거, EU가 국내 유통법 등을 제소하면 국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회 광주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 관련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와 한나라당·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대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법안을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EU와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SSM 관련 법안조차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누차 밝힌 바 있으며, 통상전문가들 또한 한·EU FTA가 현 상태로 발효된다면 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한·EU FTA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추가 논의 없이 국내법을 강화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난 2일 정책자료를 통해"현 한·EU FTA 조약에 한국은 '서비스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소매, 프렌차이징편에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는 물론, 한국은 유럽연합 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결국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삼성과 합작, 대형마트 3사 중 1곳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영국 테스코(TESCO)가 한·EU FTA가 비준되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EU는 이미 지난 2009년 12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1㎞ 반경 이내 지역에서 SSM을 완전히 금지하는 국내법은 한·EU FTA 양허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지난해 8월에도 "EU와 한국은 이제 막 협상이 끝난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명하고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그같이 중요한 시장(SSM 유통시장)을 닫아 버리는 것은 명백히 FTA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광주지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한·EU FTA 통과 후에도 유통법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해결대책 등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통 분야는 최대한 미루고 중소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뒤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해피 바이 투게더" 기아자동차는 4일 서울 리츠 칼튼 호텔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해피 바이 투게더(Happy-buy Together)' 선포식을 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값으로 판매"

정가판매제 본격 도입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모든 지점과 대리점에서 같은 가격의 차를 살 수 있는 정가판매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기아차는 4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가판매제인 '해피 바이 투게더(Happy-buy Together)'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가판매제 도입은 고객에 단기적인 가격 혜택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업점 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 만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가제 도입을 통해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오는 고객의 불만은 적어지고 투명성은 높아져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 선포식을 열고 정가판매제인 '프라미스 투게더(Promise Together)'를 도입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분기 건축허가 6320동

광주·전남,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광주 1070동, 전남 5250동 등 총 6320동으로, 지난해 1분기(6218동)보다 1.6% 늘었다. 또 착공 물량은 광주 541동, 전남 3048동으로 집계됐다.

1분기 광주지역 건축허가 물량은 상업용이 404동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고, 주거용 379동(35.4%), 공업용 115동(10.7%), 교육·사회용 72동(6.7%) 등이었다. 전남지역은 주거용이 1431동(27.3%)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934동(17.8%), 공업용 217동(4.1%), 교육·사회용 146동(2.8%)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100㎡ 미만이 광주 323동, 전남 3168동으로 각각 30.1%와 60.3%를 차지했다. 100~200㎡ 미만이 각각 222동(20.7%)과 599동(11.4%), 300㎡~500㎡ 미만이 202동(18.8%)과 572동(10.8%)으로 뒤를 이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3452동(광주 589동, 전남 2863동)으로 절반 이상(54.6%)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2078동(254, 1824), 지방자치단체 143동(16, 127), 국가기관 44동(9, 35), 정부투자기관 16동(1, 15), 지방공사 13동(8, 5) 등이었다.

광주지역 착공 물량은 상업용이 201동(37.2%)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 194동(35.9%), 공업용 74동(13.7%), 교육·사회용 31동(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주거용이 1247동으로 40.9%를 차지했다. 이어 상업용 699동(22.9%), 공업용 189동(6.2%), 교육·사회용 116동(3.8%) 등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흥건설 세무조사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이 중흥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흥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2173억원(2010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건설업체 1위이며, 전국 순위 104위다.

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흥건설에 대해 광주청 조사1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정기조사를 받은지 5~6년 이 지났기 때문에 받는 정기조사로 심층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적외선 광학렌즈 산업화 기반 구축

5년간 300억원 투입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은 3일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 개발 및 산업화지원 사업'이 지식경제부 2011년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진흥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광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250억원 등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는 적외선 광학렌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다.

광기술원은 적외선 렌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기술개발, 시험·분석·평가·측정, 인력양성 등 적외선 광학산업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적외선 광학렌즈 소재 및 몰드 성형 비구면 렌즈의 국산화가 가능해져 2020년 매출 9000억원으로 세계시장 20%를 점유하고 4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산업단지 고용 늘었다

자동차·가전 선전 종사자 5만5159명 … 지난해보다 7.8% 증가

광주지역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가 종사자 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가전산업의 선전으로 관련 기업 입주 및 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가 전국산업단지의 올해 1·4분기 운영 현황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2191개로 지난해 같은 시기 2112개에 비해 3.7% 늘었다. 종사자도 5만5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만1169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가동률은 지난해 91.7%에서 92.7%로 1%포인트가, 산업단지 생산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2% 각각 늘었다.

산업단지 내 업종별 종사자 규모는 기계 부문이 46.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17.5%, 석유화학 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는 하남산단으로 2만9917명(54.2%)이었으며, 첨단산단 1만571명(19.0%), 평동산단 5922명(10.7%)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4분기에 비교해 업종별 종사자 증가율은 전기·전자가 18.2%로 가장 높고, 기계 7.3%로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및 정보가전이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산업단지 중 하남산단 등 6곳은 지난해보다 종사자가 증가했으나 소촌산단과 소촌농공단지 2곳은 지난해보다 종사자 수가 소폭 줄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180.64 (-20.09)
▼ 코스닥지수	510.53 (-1.98)
▲ 금리 (국고채 3년)	3.79% (+0.01)
▲ 원·달러 환율	1074.90원 (+6.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